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이희경¹, 이정원^{2*}
¹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²서남대학교 교육학과

Influence of nursing teacher's infant right perception on infant care service

Hui-Kyeong Lee¹, Jeong-Won Lee^{2*}

¹Department of Child Welfare, How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Se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 권리의 측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총 4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보육서비스는 하루일과 존중, 자율성 존중, 의견 존중, 개성 존중,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역시 4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489명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여러 유형의 보육서비스 관련성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생존권의 인식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권은 보육서비스의 유형 중 자율성, 개별성, 그리고 정보제공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존과 관련된 보호를 아동권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보육서비스는 주로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권리유형별 인식차이가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ing teachers' perception of infant rights and infant care service. The scale for infant rights consisted of 40 item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nfant care service was measured with 40 items regarding respect of daily life, respect of autonomy, respect of opinion, respect of individualism,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489 nursing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s. According to the nursing teachers' perception of infant rights, the right of survival was highest, followed by the right of protection, the right of development,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e main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rights of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were meaningful in predicting various infant care services, but the right of survival was not. This study implies that the difference of nursing teachers' perception on the various types of different infant rights can affect various infant care services.

Keywords : Right of infant right, The type of infant car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ay care teacher, Child care service

1. 서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

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에서 보육교사의

*Corresponding Author : Jeong-Won Lee(Seonam Univ.)

Tel: +82-10-3635-5895 email: qiftedkorea@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5,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Revised (1st October 17, 2017, 2nd November 2,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전문성은 매우 중요시 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오랜 기간의 교육 및 수련 과정을 거쳐 습득한 고도의 지적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1].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이 영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까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의 주체, 즉 보육교사의 자질, 교육 전문성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3]. 보육교사의 인성과 교육적 능력이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영유아를 능동적 인격체가 아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주체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차이가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다면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육과 교육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자질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당연히 갖는 영유아의 관점에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어린이집에서 누리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그리고 참여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이러한 영유아의 권리 각각에 대하여 보육교사가 갖는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인권은 본래 태어나면서 부여되는 것이지만 영유아 인권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보장되고 부모의 보호와 양육 과정에서 학습된다[4].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경험의 양식도 달라질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은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수준에서 보조를 맞추는 활동을 말한다[5].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가 보육교사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보육교사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욕구에 보육교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것, 자신의 의견이 수용된다는 느낌 등을 포함한다[19].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권리를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6]. 이것에 기반한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원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아동은 부모의 인종, 종교, 언어, 재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리야 한다는 무차별의 원칙, 둘째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셋째는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생존과 발달의 권리, 그리고 네 번째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할 아동의 의견 존중이다. 최근 국내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으로 인한 아동보호와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다[7,8,9].

국내에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10개 영역의 아동권리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10]가 있고,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의 발달, 보호, 생존,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고 하도록 하여 개발된 아동권리 내용이 있다[7].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지켜야 하는 영유아에 관한 윤리강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11]. 이처럼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와 강령들 모두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한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또는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그리고 참여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영유아의 권리를 상당부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영유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역시 생각지 않았다[12]. 부모는 영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영유아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간주하여 생존이나, 보호를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13]. 자연적으로 부여된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할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간을 달리하여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을 보육시설 중심으로 살펴보면 Suh[14]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영유아 권리에 맞는 보육서비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권리를 더 많이 존중하였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유아권리에 대한 존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높은 권리인식이 실질적인 보육서비스로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영유아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육서비스의 관계가 근무환경, 보수, 근무만족도 등 많은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서 매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Jang[15]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아동권리의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육교사가 학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수준과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가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잠재성을 개발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발달권과 참여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수준이었다[8,10].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의 목적이 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라는 보육교사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영유아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인권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의 내용을 12개 영역에 걸쳐서 제시한 연구[16]가 있는데 그 영역을 살펴보면 등원시간, 정리시간, 기본육구, 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시간, 낮잠시간, 특별활동, 자율성 존중, 의사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제공으로서 모두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권리의 유형

별 인식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권리의 내용과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수준을 각 유형별로 알아보고 영유아 권리에 대한 유형별 인식수준이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의 인식수준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으로 분류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본다.

둘째. 영유아 권리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 G시에 소재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아반 보육교사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부실한 9명을 제외하고 4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학력분포는 보육교사교육원 77명, 전문대졸 283명, 대졸 129명이었고, 연령대는 20대 50명, 30대 151명, 40대 이상이 288명으로 나타났다. 보육하는 영아의 연령은 만 0세가 130명, 만 1세가 202명, 그리고 만 2세가 157명이었다. 보육하는 영아의 연령이 만 2세 이하로서 영아의 주도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보육교사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연구도구

2.2.1 영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을 중심으로 영아권리를 측정하였다. 영아권리 대한 측정도구는 Lee[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총 40문항을 활용하였고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영아권리 하위요인별 문항수와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일관성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The reliability of infant's right scale

Infant's right	Number of item	Cronbach's α
Survival right	11	.944
Protection right	8	.890
Development right	7	.853
Participation right	14	.928
Total	40	.904

2.2.2 영아권리준중 보육서비스

본 연구는 영아권리준중 보육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Kim[16]의 연구에서 개발한 ‘영유아 권리 준중 보육의 실행수준 평가도구’를 활용하였다. 영아권리준중 관련된 보육서비스의 하위영역은 5개로 구분될 수 있다. 하위영역의 내용은 하루일과 준중, 자율성 준중, 의견 준중, 개성 준중, 그리고 정보제공이다. 하루일과 준중은 또 다시 영아등원, 정리, 화장실 다녀오기, 소집단 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 낮잠, 특별활동으로 구분되는데 보육교사가 영아들에게 얼마나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장하고 배려하는가를 측정하게 된다.

영아권리준중 보육서비스는 모두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상에서 측정되었다. 영아권리준중 보육실천력 측정을 위한 하위영역의 문항수에 대한 내적일관성 수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The reliability of infant care scale

Infant care	Number of item	Cronbach's α
Respect of daily life	19	.936
Respect of autonomy	4	.819
Respect of opinion	6	.930
Respect of Individualism	7	.900
Provision of information	4	.837
Total	40	.884

Table 3. Paired samples T-test of nursing teacher's infant right perception

Paired samples	Mean(SD)	t	P-value
Survival-Protection	-.002(.24)	-.174	.862
Survival-Development	.394(.43)	22.782	.000
Survival-Participation	.143(.24)	15.080	.000
Protection-Development	.396(.47)	20.861	.000
Protection-Participation	.140(.30)	11.689	.000
Development-Participation	-.252(.33)	-18.661	.000

2.3 연구절차

설문은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의 협조하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익명성과 정보처리의 윤리성을 강조하였고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분정도였다. 설문실시 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설문지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영아 보육에 관한 간단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분석 위주로 알아보았고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연구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 간 상관분석, 아동권리 하위요인 별로 보육교사의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차이검증분석(t-test), 그리고 아동권리의 하위요인 별 보육교사의 인식이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영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영아권리 4개의 영역, 생존권, 보육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호권 (M=4.799, SD=.44), 생존권(M=4.797, SD=.46), 참여권 (M=4.655, SD=.48), 그리고 발달권(M=4.403, SD=.5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영아권리 영역별 보육교사 인식에 대한 평균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생존권-보호권 대응표본만이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74, p=.862).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아권리는 보육권과 생존권의 관점이 발달권이나 참여권의 관점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보육의 대상이 영아 만 2세 이하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 $p < .001$

Variables		A1	A2	A3	A4	B1	B2	B3	B4
Infant's right	Survival (A1)	-							
	Protection (A2)	.86**	-						
	Development (A3)	.69**	.62**	-					
	Participation (A4)	.87**	.80**	.82**	-				
Infant care	Daily life (B1)	.60**	.54**	.62**	.71**	-			
	Autonomy (B2)	.49**	.39**	.59**	.60**	.73**	-		
	Opinion (B3)	.59**	.48**	.62**	.69**	.83**	.72**	-	
	Individualism (B4)	.58**	.47**	.62**	.66**	.75**	.73**	.76**	-
	Provision of info. (B5)	.47**	.39**	.63**	.59**	.68**	.66**	.68**	.73**

3.2 영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보육서비스의 관련성

영아권리의 4개 하위영역과 5가지 유형의 보육서비스 상호 변인들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영아권리인식의 하위영역과 보육서비스 5가지 유형 간에는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고 그 관계성은 정적인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즉,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5가지 유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 보육서비스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상대적 영향력

3.3.1 하루일과 존중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영향력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인식이 보육서비스의 한 유형인 하루일과 존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생존권은 영양섭취, 위생관리, 휴식보장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호권은 성별, 피부색, 가정형편, 외모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권은 아동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관심, 아동학습의 장려에 대한 인식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참여권은 영아 표현의 중요성, 욕구에 대한 즉각적 반응, 영아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Table 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 유형의 하나인 하루일과 존중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인식은 51%의 설명력을 보였고 영아권리의 하위영역에서는 발달권과 참여권만이 하루일과 존중에 대한 보육서비스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하루일과 존중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ant' right for predicting daily life

*** $p < .00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value	R ²	F
Daily life	Survival	.056	.742	.458	.514	160.70***
	Protection	.110	1.788	.074		
	Development	.126	2.514	.012		
	Participation	.646	8.630	.000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ant' right for predicting autonomy

*** $p < .00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value	R ²	F
Autonomy	Survival	.044	.523	.601	.389	98.492***
	Protection	.181	2.642	.008		
	Development	.286	5.109	.000		
	Participation	.467	5.583	.000		

3.3.2 자율성 존중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영향력

보육서비스의 한 유형인 영아의 자율성 존중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율성 존중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39%였고 영아권리의 하위영역 중에서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이 자율성 존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율성 존중은 영유아의 개별적인 애기 들어주기, 하고 싶은 것 하도록 하기 등 영유아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자율성 존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3.3 의사 존중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영향력

보육 서비스 중 영아의 의사존중과 관련된 문항은 영유아와 효과적인 상호작용, 영유아의 몸짓이나 표현에 대한 주의력, 영유아 요구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존중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전체 설명력은 49%였고 영아권리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발달권과 참여권만이 의사존중과 관련된 의미 있는

요인이었고 생존권과 보호권은 영유아 의사존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4 개별성 존중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영향력

보육서비스의 개별성 존중에 관한 문항은 영유아의 개인정보 유출금지, 영유아의 존엄성, 영유아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권리인식의 4가지 유형이 개별성 존중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46%였고 생존권을 제외한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별성 존중의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3.3.5 정보제공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영향력

보육서비스의 마지막 요인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영아권리인식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정보제공은 영유아에게 하루일과, 발달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권리인식의 4가지 유형은 정보제공에 대한 42%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생존권을 제외한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이 정보제공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영아권리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ant' right for predicting opinion *** $p < .00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value	R ²	F
Opinion	Survival	.057	.729	.466	.486	144.148***
	Protection	.104	1.656	.098		
	Development	.187	3.642	.000		
	Participation	.566	7.370	.000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ant' right for predicting Individualism *** $p < .00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value	R ²	F
Individualism	Survival	.073	0.745	.624	.461	130.001***
	Protection	.171	2.641	.008		
	Development	.228	4.326	.000		
	Participation	.459	5.832	.000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ant' right or predicting provision of info. *** $p < .00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p-value	R ²	F
Provision of Info.	Survival	.053	.636	.525	.423	111.612***
	Protection	.222	3.323	.001		
	Development	.422	7.734	.000		
	Participation	.374	4.592	.000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아동권리의 인식 중 생존권은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이 통제되었을 때, 보육서비스의 5가지 유형과 전혀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발달권과 참여권은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5가지 유형을 설명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아동권리 중 보호권은 보육실천력의 하루일과 존중과 의사 존중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적절하지 않았지만 자율성 존중, 개별성 존중, 그리고 정보제공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아동들은 아직 미성숙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그들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인권 또는 아동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수준이 아동보육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동권리와 아동보육 서비스는 각각 4가지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요인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와 그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응답한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유형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생존권과 보호권이 발달권과 참여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역할은 크게 아동의 단순한 보호와 아동의 교육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8] 아동권리의 생존권과 보호권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차별금지와 관련된 권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영양공급과 안전과 관련된 생존권이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육기관의 전통적인 역할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아동권리의 4가지 유형 중 생존권은 5가지 유형의 보육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동권리의 4가지 유형이 동시에 보육서비스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인 중요성에 의해서 생존권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에 대한 각각의 유형이 상호 중첩되거나 효과를 억제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권리 유형 중 발달권과 참여권은 5가지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발달권과 참여권은 내용적으로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 보육서비스를 하루일과, 자율성, 아동의 의사, 개별성,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제시하였는데, 보육서비스의 내용이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높은 인식수준이 보육교사에 의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존과 관련된 보호를 아동권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보육서비스는 주로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높은 인식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제 사전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권리는 보육교사 뿐만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체계적인 가정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해 보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영유아 권리 실현에 대한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권리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에 부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유아를 보살피는 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보육 서비스로서 Kim[16]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행수준 평가도구’를 활용하였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척도 중 하루일과 존중에 대한 요인은 8개의 하위영역으로 또 다시 분류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하위영역별로 아동권리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References

- [1] M.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or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 Teacher-Parent Communication Attitude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40, no. 3, pp. 1-19, 2005.
- [2] J. B. Park, J. H. Kim, E. S. Kim,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Infant Care Teachers’ Needs of Teaching Consulting”,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3, pp. 473-496, 2012.
- [3] J. S. Kim, K. A. Song, “An Analysis of Guidance Contents of Cooperating Teachers in Child Care Practicum”,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0, no. 1, pp. 91-107, 2010.
- [4] Y. H. Moon,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Realization of the Child’s Rights”, Korean Journal of human right welfare, vol. 6, pp. 71-93, 2010.
- [5] J. A. Song, J. S. J., “Research about Relation of Human Rights Sensibility and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 Focused on Preliminary Child Care Center Teacher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vol. 20, pp. 23-53, 2011.
- [6] J. E. Su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ight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Graduate of School of Sookmuyung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7] Y. S. Suh, H. J. Suh, J. S. Kim, “Care-giving Teachers’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Demand for Teacher Education on Respecting Children’s Rights in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te Administration, vol. 13, no. 3, pp. 215-232, 2009.
- [8] S. J. Ryu, “A survey study of children’s rights and practice of safeguard for children’s rights perceiv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Graduate of School of Kyungse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9] K. H. Kim, S. Y. Ann, J. S. Han, “A Study on Children’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 Experience in Childhood Education Center”,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17, no. 6, pp. 175-204, 2013.
- [10] J. H. Yun, “A model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eacher and parents of children for children’s right at education institution of children”, Graduate of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11] E. S. Kim, S. Y.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Reasoning and Ethical Practice of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5, no. 3, pp. 207-226, 2011.
- [12] J. H. Shin, “A Study on the Parents’ Percep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for Their children”, Graduate of School of Sookmuyung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13] P. Leach, “Infant Care from Infants’s Viewpoint: The Views of Some Professional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vol. 6, no. 2, pp. 47-58, 1997.
DOI: [https://doi.org/10.1002/\(SICI\)1099-0917](https://doi.org/10.1002/(SICI)1099-0917)
- [14] Y. I. Suh,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ducare teacher about the right of infant and baby: focusing on the cities of Bucheon, Gwangmyoung and Siheung”, Graduate of School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15] H. S. Jang,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toward children’s rights education program: Knowledge and necessity”, Graduate of School of Sej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6] S. Y. Kim, “An influence of discussion-based rule-adjusting activities on children’s compliance and teacher’s behavior”, Graduate of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7] M. S. Lee, “Research on Children’s Rights and the awareness and current situation of pre-school teachers and parents”, Graduate of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8] O. S. Ya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quiry in a Reconceptualist Perspectiv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22, pp. 139-790, 2000.
- [19] J. C. Schipper, L. C. Travecchio, M. V. IJzendoorn, M. Linting, “The relation of flexible child care to quality of center day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functioning: A survey and observational stud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26, no. 3, pp. 300-325, 2003.
DOI: [https://doi.org/10.1016/S0163-6383\(03\)00033-X](https://doi.org/10.1016/S0163-6383(03)00033-X)

이 희 경(Hui-Kyeong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우석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미술학석사)
- 2013년 2월 : 서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아동복지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교육

이 정 원(Jeong-Won Lee)

[정회원]



- 2000년 8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서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